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골목마다 ‘문화 향기’ 스며든다

‘문화 일번지’ 광주시 동구에 새로운 ‘문화의 싹’이 피어나고 있다. 내년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도심 공동화로 쇠락해가던 동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광주의 ‘문화지형도’를 새롭게 바꿔놓았다. 젊음의 거리 충장로, 예술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동명동 일대, 그리고 인근 남구 양림동 곳곳의 골목에 문화가 스미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하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연장·갤러리·소극장...카페 겸 전시장
문화전당 10~20분 거리 ‘시너지’ 기대



충장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패션 중심지 충장로 부근엔 숨겨진 문화 공간들이 많다. 충장로 1가 입구 밀려타일 지하에 자리한 감성문화공간 ‘보헤미안’은 가장 최근에 문을 연 문화 명소다. 8월말 정식 개관한 ‘보헤미안’은 아마추어 음악 애호가인 김남국씨와 ‘꼬두메’ 출신 박우영씨가 함께 꾸려가고 있는 라이브 공연장이다.

80석 규모로 음향시설과 악기 등을 잘 갖추고 있어 지역 밴드들의 공연이 이어지는 등 인기가 높다. ‘보헤미안’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충장로 기분 좋은 극장은 지난해 6월 개관작 ‘죽여주는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 후 매달 다양한 작품을 공연 중이다. 150석 규모로 주 관객층은 고등학생부터 20대 젊은이들이다.

메가박스 광주점 인근에 자리한 광주아트홀은 150석 규모의 소극장으로 빛소리오페라단이 운영하는 공간이다. 음악 전문 단체가 운영하는 공간답게 규모는 작지만 스타인웨이피아노를 갖추고 있으며 LED 조명도 갖췄다.

옛 한국은행 자리 금남공원 바로 이웃한 곳에 위치한 소극장 공연일번지는 80석 정도의 작은 공간으로 극단 문화공동체 DIC이 운영한다. ‘공연일번지’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광주세무서 맞은 편에 극단 청춘의 전용극장 ‘똥’이 자리하고 있다.

‘공연일번지’와 같은 건물 3층에는 최근 소박한 갤러리 하나가 문을 열었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무등산풍경소리가 오픈한 ‘아하 갤러리’다. 전시는 물론 세미나실에서 젊은 영화인들 모임도 열린다.

충장로 옛 가든백화점 맞은편 2층에 위치한 커피숍 ‘커피 홀릭’에서는 대형 그림도 걸 수 있는 벽면과 조명 시설 등을 갖추고 매달 작가들의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웬만한 갤러리 못지 않은 전시회를 진행한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도보로 5분이면 도착하는 예술의 거리에는 민들레 소극장, 공동예술극장 등 공연장과 무등갤러리, 아트타운 갤러리 등 다양한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다.

장동 동명동 서석동

투어의 시작은 장동 교차로에 있는 광주 폴리 I ‘소통의 오두막’에서 하된다. 잠시 앉아 책을 읽으며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전당을 바로 앞에서 만날 수 있다. 이 폴리 옆에는 복합문화공간인 쿤스트라운지(Kunst Lounge)가 있다. 이 공간은 1층 카페와 지하에 있는 솔츠 앤 웍 갤러리로 구성됐다. 1층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다양한 파티와 자선행사가 진행된다.

길 건너에는 알람(調庵)인권작은도서관이 있다. 고 명노근 교수의 호를 따 문을 연 이 도서관에는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사의 자료와 인권 서적 2000여권이 갖춰져 있다.

다시 폴리를 따라 옛 광주여고 쪽으로 올라가면 울조에 문을 연 이색적인 복합문화공간 스토아 어바나를 만날 수 있다. 컨테이너박스 5개와 철제빔으로 만든 스토아는 이 일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이다.

광주중앙도서관에서 동명동 주민센터 쪽으로 걷다 보면 최근 정년한 조선대 김대원 교수가 운영하는 수하갤러리가 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만나

는 춘수(春水)공방은 멋스러운 한옥 건물로 대금 등 국악관악기 제작자 권봉현씨와 태권 전수자 이순미씨 부부가 운영하는 공간이다. 대금, 단소, 태권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게스트하우스로도 이용되기도 한다. 양옥집을 개조해 만든 제회갤러리에서는 멋드러진 외관만큼이나 좋은 전시들이 항상 열리고 있다.

동명동 주민센터 앞 소소한풍경은 작은 도서관이자 영화관이며, 음악회, 전시 등이 가능한 복합문

화공간이며 농장다리 인근에는 푸른길갤러리와 복합문화공간 신시와가 푸른길과 어우러져 있다.

양림동

기독교 역사 유적지, 근대건축문화 유적지인 양림동이 예술문화를 덧입힌 역사문화거리로 재탄생하고 있다. 수백년 역사를 간직한 양림동만의 고유 자산을 활용하면서 여기에 예술가와 주민들이 힘을 보태 ‘이야기가 있는 양림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양림동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올라간 곳은 호남신학대 도서관 건물이다. 언덕 위에 자리한 이곳에 분위기 좋은 카페 ‘티브라운’이 자리하고 있다. 카페 바로 옆에는 탁 트인 잔디밭을 가로질러 우월순(로버트 월슨) 선교사의 회색벽돌기 와집이 자리하고 있다.

양림동 스토리 발굴에 앞장서고 있는 정현기 ㈜아트즈 대표는 폐가로 방치된 선교관 두 곳을 임대해 리모델링 한 뒤 게스트하우스와 해외 작가들을 포함한 예술인들의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골목을 따라 내려오면 ‘다형다방’이 보인다. 다형다방은 양림동이 낳은 시인 다형 김현승 시인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바로 옆에 자그마한 쉼터 ‘시인의 벤치’가 생겼다.

호남신학대에서부터 양림 휴먼시아 아파트까지 제중로 일대는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바들숲 양림’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으로 새 옷을 갈아입었다.

양림미술관과 515갤러리도 눈길을 끈다. 한옥스타일의 양림미술관은 주민과 참여 작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꿈꾼다. 디자인과 공예를 주축으로 한 515갤러리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문화공연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정인기자 kki@kwangju.co.kr



양림동 주민이 아기자기한 잡동사니를 모아 꾸민 ‘뽕인 땃밭’.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8월 광주 충장로 1가 입구에 문을 연 감성문화공간 ‘보헤미안’. <문화공간 ‘보헤미안’ 제공>

한가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정에 두루 편안 하시길 기원합니다.

니만 24
니만의 여행 전국대표예약
www.baepyo.net

JNJ TOUR | 주 정남진투어 | 대표전화 1577-7616
장흥해운 오렌지호 발권대리점
www.jejuferry.co.kr